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10. 20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신성장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김연주, 바이오헬스케어팀장 임대화, 담당 김희정(032-453-7654)

“글로벌 바이오 허브 선점 위한 송도 11공구 부지 공급”

인천경제청, 의료용 물질·의약품 제조업 대상 산업시설 용지 공급

35만여㎡ 규모 제조용지 1필지, 공고시점 조성원가 기준 공급

11월 30일 신청서류 접수, 12월 10일 사업제안 평가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-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 의약 분야 제조시설 유치에 나섰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1)’을 대상으로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(C)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.
- 이번 산업시설 용지 공급은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것이다. 인천경제청은 첨단 의약 분야 시설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, 의약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의약품에 대한 생산·공급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부지 공급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.
-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(EU)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핵심 의약품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고 우리나라도 백신·치료제 허브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등 전 세계가 백신·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세계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할

것으로 기대된다.

- 공급부지는 11공구의 송도동 430번지 1필지로 면적은 35만7천366㎡ 규모다.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된 제조시설 부지로 지난해 9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 기본계획에 글로벌 상업화와 국내 중소·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.
- 공급부지는 산업시설 용지로 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건립이 허용된다. 중소·벤처기업 육성 등 산업육성 시설 건립·운영이 필수조건으로 부지가격은 공고 시점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된다.
- 사업자 선정은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,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3개월간의 우선협상을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.
- 오는 11월 30일에 신청서 접수, 12월 10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개최된다.
- 자세한 사항은 경제청 홈페이지((www.ifez.go.kr) IFEZ 소식>공고>고시·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이번 부지공급은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”이라며 “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후방 산업의 육성과 향후 송도 11공구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할 중견·중소기업들과 상생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참고

공급부지 현황

□ 시설건립 관련 주요사항

위치	면적	용도지역	건폐율	용적율	건축물 높이
송도동 430 (획지번호 Ki19)	357,366㎡	준공업	60% 이하	250% 이하	60m 이하

□ 위치도

